

“자연과 더불어 상생하는 농촌마을 만들기”

마을주민 12명과 라벤더 작목반 구성 ... 올해 온난화 현상으로 작황 부진 아쉬워

‘라벤더 축제’로 바뀐 어천3리 이종문 이장

간성을 어천리는 진부령과 간성을 시가지의 중간지점에 위치해 있는 전형적인 농·축산마을이다.

어천리 중에서도 어천3리는 6.25 전쟁을 겪고 제대한 군인들을 위해 국가에서 향군마을로 지정해 1960년대 정부에서 제대한 군인가족 30가구를 입주시키면서 형성된 재향군인촌 마을이다.

수려한 산세와 오염되지 않은 하천을 보유한 어천3리 38가구 80여명의 마을을 이끌고 있는 이종문 이장(54세, 사진)을 만나 ‘라벤더 축제’ 등 마을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 이장은 전남 장흥태생으로 4세때 부친인 이인규씨(85세)를 따라 정착을 하게 됐다. 부친은 당시 30가구의 제대 군인가족으로 입주한 사람들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다.

이 이장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이장을 역임했으며, 지난해부터 다시 이장을 맡고 있다.

“자연과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농촌과 테마 마을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지요. 이제는 시대에 맞는 농촌과 관광이 어울러지는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어천3리 마을은 철쭉꽃밭이 많은 동네라 해서 ‘꽃댕이’ 마을이라고 칭해졌다고 한다. 이러한 지명을 활용해 현재 가족과 함께 ‘꽃대마을 가든’을 운영하고 있다. 또 밭농사뿐 아니라 사슴과 염소 등 축산업도 하고 있다.

이 이장은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고장을 만들기 위해 마을 주민들과 함께 2006년부터 라벤더 향수테마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2007년에 라벤

더 향수테마 마을과 2009년 농업농촌 테마조성사업이 지정되는 결실을 맺었다.

이후 계속된 마을주민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화합으로 고성 제일의 라벤더 테마 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 이장은 라벤더 축제를 전국 제일의 축제로 만들기 위해 마을주민 12명과 라벤더 작목반을 구성해 더 좋은 테마 공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지난해 늦여름부터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작황이 부진하다는 점이다.

이 이장은 “현재 4회를 맞고 있는 라벤더 축제가 비록 온난화 현상으로 부족함이 많지만,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지역민들에



게 희망의 힘을 많이 실어주었으면 한다”고 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우리 고장을 위해 노력할 생각입니다. 지역주민들과 고성 지역의 아름다움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홍보도우미 역할을 하겠습니다.”

박승근 기자

□ 새롭게 발족한 ‘동그라미 족구회(회장 박수식)

“건강 다지며 수도권에 고성 홍보”

지난달 26일 동광중·산업과학고등학교 체육관에서 남성연 고성군 족구연합회장과 회원 및 가족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성 동그라미 족구회(회장 박수식)창단식을 가졌다.

이번에 창단된 간성 동그라미 족구회는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으로 족구를 좋아하고 족구로 맺어진 형제로서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는 물론 고성군 족구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목적으로 창단하게 됐다.

동그라미 족구회는 간성읍에 거주하는 38세 이상 14명의 회원으로 구성됐으며, 모든 행사는 회원가족과 함께 추진하게 된다.

또 매주 일요일 족구전용구장에서 개인 훈련 및 연습경기를 갖고, 1년내에 수도권 족구회와 자매결연을 통해 고성을 널리 알리고 홍보도우미 역할에 일조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동그라미 족구회 회원 명단이다.

- ◆회장 △박수식(대표, 신창플렌트) ◆부회장 △장원진(고성군청) ◆사무국장 △황승열(고성군의회) ◆총무 △신창선(대표, 고성종합광고) ◆감독 △박재성(대표, 용궁) ◆코치 △이봉기(행정관, 울곡부대) ◆추진위원장 △전영환(행정관, 울곡부대) ◆추진위원 △함창길(대표, 커피전문점) △김명호(대표, 원양싱크) △정효섭(대표, 수성공업사) ◆회원 △김지형(행정관, 울곡부대) △한명구(대



지난달 26일 새롭게 발족된 간성 동그라미 족구회 회원 및 가족들의 파이팅 장면.

표, 누에농장) △김승현(고성등기소) △윤재문(행정관, 울곡부대) 등이다

박승근 기자

□제16대 속초해양경찰서장 김홍희 총경

“현장팀과 격의 없는 대화”

제16대 속초해양경찰서장으로 김홍희 총경(金洪熙, 43세, 사진)이 부임, 지난 1일 오전 10시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다.

김 서장은 취임사에서 “업무에 대한 가슴앓이 없이는 발전이 없다”며 “현장 업무 담당자와 격의 없는 소통의 장이 되도록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서장은 지난 1994년 경찰 간부후보 42회로 입문해 동해해경 1502함 부함장, 해양경찰청 기획팀장, 발전기획단장, 경비과장을 역임했다.

경남 남해 출신인 김 서장은 부산남고와 부경대학교 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를 나왔으며, 지난 2002년 중국유학길에 올라 중국화동법정대학 대학원 법학위를 졸업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박은숙(40세)씨와 1남 2녀를 두고 있다.

최광호 기자



가스공사 강원본부 왕곡마을 문화재지킴이 행사

한국가스공사 강원지역본부는 지난달 28일 고성왕곡마을에서 전통민속마을의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목재로 제작한 쓰레기 분리수거대를 기증하고, 우천으로 인한 가옥 훼손방지 활동을 전개했다. 한국가스공사 강원지역본부는 2009년부터 왕곡마을과 문화재지킴이 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년 상·하반기 가옥별 가스 안전검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최광호 기자